광주비엔날레 개막 한달 …침체성 못 벗어나

관람객 13만 여명…전시장 활기 없고 흥행 부진
전문인력 부족, 조직 관리 등 '리더십 미흡' 제기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7일로 개막 한 달을 맞았지만 초반 흥행 부진에 이어 좀처럼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불과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평가받는 등 국제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정체성 부족 등 구태의연한 조직운영으로 예전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라는 주제를 내걸고 개막한 이번 비엔날레는 이전의 비엔날레들과 비교해 전시장 활기가 없는 데다 관람객 수도 많지 않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비엔날레에 한 달간 다녀간 관람객은 13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상으로는 선방한 수치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제미술이벤트 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다.

관람객 가운데 상당수가 이른바 '단체관람'으로 통하는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동원 관람'인 데다 외국인 관람객은 개막 초기 재단의 초청으로 참석한 외국 언론인들과 큐레이터 이외에 평일에는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흥행 부진은 지난 1일 개막한 순천만정원박람회와 비교해도 뚜렷하다. 개막 후 12일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고 조만간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원박람회의 흥행과 대조적이라는 것. 당시 정원박람회는 하루 평균 7~8만 명이 관람하는 등 개막 12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초반 돌풍을 이어갔다.

미술계 인사는 비엔날레 개막 직전 '비엔나 소시지'를 활용한 홍보영상이 비엔날레를 희화했다는 여론과 김건희 여사 개막식 초청 건〈광주일보 2023년 4월 10일자 2면〉 등 이슈가 맞물리면서 전시에 대한 관심이 밀리면서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비엔나 소시지'를 매개로 광주비엔날레를 환기하고 홍보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영상을 본 이들은 고품격 미술행사인 비엔날레를 희화화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같은 비엔날레의 흥행 부진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조직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비엔날레 구성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적잖이 조직을 떠나면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데다 이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조정할 리더십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비엔날레를 치르기 위해선 인적 구성이 중요한 데 이에 대한 지역문화계의 지적을 재단이 수렴하는 데 소홀했다는 얘기다.

특히 대표이사의 역할론도 비엔날레의 침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한 지역 문화계 인사는 "대표 이사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비엔날레의 흥행과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광주에 상근하지 않고 서울사무소와 오가며 이원 체제로 운영하다보면 조직을 총괄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비엔날레의 흥행부진은 "(전시면에서)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일부 평론가들의 비판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에드워드 호퍼전, 조선백자전 등 블랙버스터전으로 미술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도 무관치 않다.

또한 개막 초창기에 첫 수상자를 발표한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이 광주비엔날레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면서 전시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린 측면도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군 공항 이전·무안공항 활성화 해법 나오나

김영록 전남지사 제안, 강기정 광주시장과 10일 회동 결과 '주목'
민간·군 공항 패키지 이전 의견…함평유치 담화문에 후폭풍 예상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처음 만난다.

강 시장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잇따른 인접 자치단체 방문과 맞물려 김 지사가 최근 민간공항의 조속한 무안공항 이전,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공개, 무안군 내 공정한 논의의 장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뒤 이뤄지는 만남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유럽 순방 중인 김 지사는 8일 귀국한 뒤 10일 광주에서 강기정 시장을 만난다. 전남도가 제안하면서 성사된 이번 만남은 군 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자리다. 군 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을 감안하면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광주 군 공항 유치에 중립적 입장을 보여온 이상익 함평군수가 8일 광주 군 공항의 함평 이전 논의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는 점 등도 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발표될 이 군수의 담화문에는 "함평군의 군 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중립적 입장에서 군 공항 유치 쪽으로 기운 듯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김 지사는 앞서 함평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광주 편입을 전제로 한 군 공항 이전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고, 최근에는 광주시와 함평군 등의 '일방적인' 군 공항 이전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하고 민간공항 이전 등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광주시는 그동안 영광·함평 등을 잇따라 다니며 군 공항 이전 사업 절차와 군 부대 주둔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효과, 이전지역 주변 지원 방안 등 군공항 이전 관련 설명회를 열었었다.

이 때문에 양 시·도지사 간 만남이 단순한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것을 넘어 군 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활성화로 이어지는 신호탄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선언과 전남도가 주도해서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공항+군 공항'의 패키지 무안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점도 김 지사가 해결해야 할 '결단'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최근 실국 정책회의에서 "생활 소음은 일부 왜곡·과장된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적정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해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왜곡·과장된 정보를 적극 해명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찰스 3세 영국 국왕 대관식 찰스 3세 영국 국왕(왼쪽)과 커밀라 왕비가 6일(현지시간) 대관식을 마치고 런던 버킹엄궁 발코니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영국에서 국왕의 대관식이 열린 것은 1953년 선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이후 70년 만이다. /연합뉴스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엔데믹 속도

정부, 조만간 위기 단계 하향 여부 결정…방역·의료조치 완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면서 국내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논의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당초 발표했던 엔데믹 로드맵대로 조만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1주일인 격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등 방역과 의료 관련 조치가 완화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는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서도 일상회복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국 중 미국은 오는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이며 일본 역시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고 관련 방역 조치를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조만간 열릴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앞서 발표한 로드맵의 '1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1단계 조치가 시작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된다. 병상 운영도 일상에 가까워져 한시지정병상 운영이 최소화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이 중심이 된다.

/연합뉴스

한미동맹 70주년 역대 최대 연합화력격멸훈련

한미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진행한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 진행된다.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 시 응징·격멸 능력을 시현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군이 중점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 체계들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AH-64 아파치 공격헬기, K-2 전차와 K-21 장갑차, 천무 등 다연장로켓포(MLRS), 주한미군의 M-2 브래들리 계열 장갑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영상 시청, 군집드론·고공강하 시범 등을 포함한 식전행사, 이번 훈련의 핵심인 실사격과 실기동훈련이 진행되는 1·2부, 국내 방산 주력장비와 신규 첨단전력을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비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또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비대칭 위협과 전시 상황에 대한 실전적인 대응작전을 선보인다.

국방부는 군의 신뢰도 제고와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차원에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중 앙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신 용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447㎡ (740평)
- 경관 좋음. 별장형 빌라 등 가능. 숙박시설가능
- 매도 7억7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 컨테이너 있고 공시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구례군 공고2023-355호

분묘개장공고(2차)

섬진강변 익사이팅 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의 개장 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연락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 관계법에 의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104-16
2. **분묘의 기수** : 1기
3. **개 장 사 유** : 섬진강변 익사이팅 시설 조성사업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공 고 기 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827 천일추모공원(1차 공고와 동일)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기 타** :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8. **신고(연락처)** : 문화관광실 (061 - 780 - 2850)
9. **신 고 요 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3. 5. 8.

구 례 군 수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23느단3017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장 복 순(1961. 6. 18.생)
   등록기준지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629번지
   최후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287-22
   사 망 일 : 2022년 12월 11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을 2023년 7월 10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08호 (미래타워)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08호 (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3년 5월 8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71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